

#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Problems in Academic Libraries: Cases of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곽 동 철(Dong-Chul Kwack)\*

김 기 태(Ki-Tae Kim)\*\*

윤 정 옥(Cheong-Ok Yoon)\*\*\*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문제점 |
| II. 각국 고등교육환경 및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 | IV. 맺음말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등 영어권 주요국가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상이한 국가제도와 문화적 전통 고등교육체제 및 정보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유한 문제점들보다는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들은 예산의 축소,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 컬렉션 축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구조의 요구,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등이다. 이 문제들은 서로 고립된 개별적 문제들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개별 도서관의 대응책보다는 국가 혹은 정부의 보다 거시적이며 광범한 차원의 이해와 전략적 대책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영어권 국가의 대학도서관, 고등교육 환경 변화, 대학도서관 문제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roblems, which academic libraries in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have faced since the 1990s. These problems are mostly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s in higher education. In this study, only discussed are the problems that academic libraries in various countries have commonly experienced, but not unique ones libraries in each country has due to its own national, societal, cultural, academic or informational situations. Major problems include continuing decrease in library expenditures, changing role of libraries themselves, changing nature of library collection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on campus, steep increase in prices of scholarly journals, and relative decrease in purchasing powers of libraries. These problems are all closely inter-related, and seem to require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rategic solution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or government intervention, rather than individual libraries.

Key Words: Academic Librari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Environmental Change in Higher Education, Problems in Academic Librarie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wackdc@cju.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도서관(ktkim1@pusan.ac.kr) (공동저자)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1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 I. 머리말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국가 인적자원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sup>1)</sup>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등 영어권 주요국가의 대학도서관들은 고등교육기관의 핵심적 학술 및 연구정보 기반시설로서, 지난 일십년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된 정보사회화, 국제화, 노동 및 인력시장의 구조변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제 측면의 변동에 대응하여 수립된 고등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여,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관련 회원기구, 유관 단체 및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부심하고 있다. 발전계획의 수립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각기 상이한 국가 제도와 문화적 전통, 고등교육체제 및 정보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유한 문제점들 보다는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같이 영어권 주요국가의 대학도서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광동철 등의 연구<sup>2)</sup>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이들 국가의 대학도서관들에 비하여 크게는 사회적으로, 작게는 대학 커뮤니티 안팎에서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척박한 국내 환경에 기인한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더 보편적인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서도 일어나고

1) Commonwealth of Australia(COA). 2002.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An Overview Paper*. Canberra: Department for Education. pp.14-15. [online] [cited 2005.9.28]; Australian Vice-chancellors' Committee(AVCC), The Council of Australia's University Presidents. 2002. "The Way Forward" Higher Education Action Plan for the Information Economy." <[http://avcc.edu.au/archive/policies/information\\_tech/action\\_plan\\_information\\_econom/wayforward.pdg](http://avcc.edu.au/archive/policies/information_tech/action_plan_information_econom/wayforward.pdg)> [online] [cited 2005.9.9]; United Kingdom, Dept. of Education and Skills(DFES). 2004.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Five Year Strategy for Children and Learners: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s, by Command of Her Majesty." July 2004. <<http://www.dfes.gov.uk/publications/5yearstrategy/docs/Dfes5Yearstrategy1.rtf>> [online] [cited 2005.8.28]

2) 광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5.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도서관 정책 연구: 2005-6).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을 기대한다.

###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대상 국가들의 고등교육 및 대학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보고서, 통계자료, 웹 문서 및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주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나라가 설정한 고등교육 정책 및 목표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 II. 각국 고등교육환경 및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

본 절에서는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변화가 대학도서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1. 미국

최근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전반적으로 학술 분야와 프로그램의 초점과 방법의 변화, 교수와 학생의 인구적 특성의 변화 및 등록의 증대, 정보기술의 영향, 대학과 대학의 교수, 연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대학 커뮤니티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이 그들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려면, 이처럼 계속되는 변화의 요구조건을 예측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고등교육 환경 및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라야 된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정책을 개별 도서관이나 컨소시엄, 주(州)나 지역 차원의 협력조직, 각급 대학도서관협회들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시도해 왔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는 2000년 연례 컨퍼런스에서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ACRL Task Force를 구성하고 일곱 가지 주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이 지적한 중대한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사서의 충원, 교육 및 유지; 학술기업에서 도서관의 역할; 정보기술이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자원의 생성, 제어 및 보존;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혼돈(chaos); 새로운 이용자 지원; 및 고등교육의 재정지원.<sup>3)</sup>

또한 미국 내에서 주정부가 관장하는 대표적 주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UC) 아홉 개 캠퍼스의 도서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sup>4)</sup>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현재 미국의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예산의 축소, 학술정보의 양과 학술정보가 생산되는 포맷 종수의 증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비용 인상, 학술정보에서 증대하는 디지털 구성요소의 손쉬운 저장·조직·제공·이용·보존 및 장기적 관리를 촉진할 통합적 기술의 결여, 그 같은 정보 및 관련된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발견·검색·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속도와 용이성에 관한 이용자들의 기대치 증대,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동반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적용할 필요성 등과 같은 것들이다.

## 2. 영국

최근 영국의 교육기술부(United Kingdom, Dept. of Education and Skills, DFES)가 간행한 전 략보고서<sup>5)</sup>는 영국의 미취학 아동의 조기교육에서 초중고등 교육 및 성인의 직업교육을 포함한 전 단계에 걸쳐 2004년부터 5개년의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고등교육이 지향할 바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혜택을 받을 잠재력이 있는 누구든 대학에 접근 허용, 둘째,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랜트 제공, 선행 투자 비용의 증식, 및 졸업생이 자기 코스의 비용에 기여할 수 있는 평등한 방식; 셋째, 보다 융통성 있는 학습 기회를 갖는 고급의 코스와 교육; 넷째, 고용주와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설계된 보다 나은 직업을 위한 Foundation Degrees<sup>6)</sup>; 다섯째, 영국을 첨단 국가로 유지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 및 여섯째, 혁신과 기술을 조장하기 위한 고용주와 고등교육 간의 적절한 연대관계.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은 1990년대 이후 십 여 년 동안 영국 내 및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일어난 변화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예측하며, 이를 위한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Dolphin과 Brophy는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의 논

3) Albanese, Andrew Richard. 2003. "The Top Seven Academic Library issues." *Library Journal*, 128(5): 43.

4)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Systemwide Strategic Directions for Libraries and Scholarly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pared for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cited 2005.8.26]

5) United Kingdom, Dept. of Education and Skills(DFES) . 2004.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Five Year Strategy for Children and Learners: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s, by Command of Her Majesty." July 2004. <<http://www.dfes.gov.uk/publications/5yearstrategy/docs/DfES5Yearstrategy1.rtf>> [online] [cited 2005.8.28]

6) 영국 고등교육에서 최근에 인정하기 시작한 새로운 자격 과정. 주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문들을 분석하여,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가장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상당부분 미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한 고유한 문제점들 가운데, 서비스 품질의 측정, 정보기술 교수의 효과 및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을 위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고, 이 같이 영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생겨나는 고유한 문제들 때문에 대학의 교수와 연구의 재정지원 면에서 정부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지역과 지방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며, 학습과 교수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웹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또한 지적하였다.<sup>7)</sup>

실제로 영국의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수행되었다. 1993년에 영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UK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는 영국의 대학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리뷰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였고, 미래의 요구와 발전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브라이언 폴렛(Brian Follett) 경의 이름을 따서 ‘폴렛 보고서(Follett Report)’라고 불린 이 보고서는 당시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에 대하여 광범하게 살펴보았다.<sup>8)</sup> 이후에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방향은 대부분 ‘폴렛 보고서’의 권장사항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호주

호주는 자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 고등교육 시스템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sup>9)</sup>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university)은 호주의 지식 기반인 정보경제를 위한 “기본적 추진자(the fundamental driver)”라고 인식하고 있다.<sup>10)</sup> 호주는 국가적으로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내일의 지도자, 개혁자, 관리자, 그리고 연구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이들이 졸업 및 취업 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 시스템이 이 같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급 대학도

7) Dolphin, Philippa, and Brophy, Peter. 2002. “Developments in the UK.”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8(4): 251-254.

8) Steele, Colin. 2000. *Library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Strategic Initiatives: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for Innova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http://www.anu.edu.au/caul/cisc/proj4final.doc>> [online] [cited 2005.10.1]

9) Commonwealth of Australia(COA). 2002.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An Overview Paper*. Canberra: Department for Education. pp.14-15. [online] [cited 2005.9.28]

10) Australian Vice-chancellors' Committee(AVCC), The Council of Australia's University Presidents. 2002. “The Way Forward>>> Higher Education Action Plan for the Information Economy.” <[http://avcc.edu.au/archive/policies/information\\_tech/action\\_plan\\_information\\_econom/wayforward.pdg](http://avcc.edu.au/archive/policies/information_tech/action_plan_information_econom/wayforward.pdg)> [online] [cited 2005.9.9]

서관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호주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립(national) 체제로서, 대학들은 전적으로 공립(public)이며, “Higher Education Funding Act 1988”에 의하여 지원받는 44개 대학 가운데 단 4개만이 사립이다. 호주는 연방정부(Commonwealth)가 1974년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맡은 이후, 공식적으로는 주(State)와 책임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연방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대학들은 재정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공립대학들에 비하여 매우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며, 자율적으로 적절한 영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호주 연방정부 교육부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보고서<sup>11)</sup>에서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보다 자립적이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재정적 자립에 대한 요구는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확보와 서비스의 증대를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호주정부총장회의(Australian Vice-chancellors' Committee, AVCC) 회원인 고등교육기관의 대학도서관장들로 구성된 호주 대학도서관장 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이하 CAUL이라 부름)는 대학도서관 협력을 위한 중심적 협의체이다. 이 위원회는 최근 호주의 고등교육 동향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도서관들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대학사회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한 동향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12)</sup>

- 대학교육의 대중화(massification): 대학교육을 받는 호주 젊은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대학 수입으로서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와 결합되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호주의 대학들은 해외 학생들의 모집, 다른 나라들, 특히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국외 교수, 및 커리큘럼 내에 국제적 관점을 개발하는 것을 통하여, 국제 커뮤니티와 연결 관계를 증대시켜 오고 있다.
- 평가의 중요성 증대: 대학 서비스 성과의 평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별 직원들의 기여에 대한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 온라인 아젠다(online agenda): 온라인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증가, 개인화된 포털의 소개, 서비스의 맞춤화, 및 대학과 그 고객들 간의 가상 상호작용(virtual interaction)을 발전시키고 있다.
- 학내 학생 지원 서비스의 통합: 대학 캠퍼스에서 도서관과 기타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 지원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경향. 호주에서 캠퍼스에서 가상 상호작용 및 학사 및 행정용 목적의 촉진기로서 정보기술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 단위부서, 교수설

11) Commonwealth of Australia(COA). 2002. 전계자료.

12) Austen, Gaynor, et al. 2002.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8(1/2): 63-6.

계/멀티미디어 분야 및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구조적 통합이나 합병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CAUL은 또한 상기한 호주 교육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무엇보다도 중대한 장애가 됨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4. 캐나다

캐나다는 열 개의 주(州, province)와 두 개의 준주(準州,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방 자치단체들이 각각 해당지역의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Northwest Territories Act'와 'Yukon Act'라는 두개의 연방법령을 통하여 두 개의 북부 준주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했고, 이들은 각각 자체의 교육부를 설립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주와 준주는 독자적인 교육체제와 기관들을 발전시켜 왔고, 여러 면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각기 지리적으로 먼 거리로 분리된 지역적 환경뿐만 아니라 및 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발전되어 왔다는 특성을 지닌다.<sup>13)</sup>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고등교육의 제공과 발전이 국가차원의 정책이기보다는 각 지역과 주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은, 고등교육 기반시설의 일부로서 대학도서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이나 그들에 대한 지원 또한 매우 개별적이며 지역적 차원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최근 고등교육의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Statistics Canada와 캐나다 교육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of Canada)가 함께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범캐나다 교육지표 프로그램(Pan-Canadian Education Indicators Program, 이하 PCEIP라 부름)은 교육 및 훈련에 책임을 맡은 각 지역 및 주정부 부처들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PCEIP 2003년 보고서<sup>14)</sup>는 캐나다의 고등교육 환경과 목표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8-89년과 1998-99년 사이에 캐나다 대학의 전일제 학생 수는 증가하고, 파트타임 등록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일제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보고하고 있다. 1990년대 동안 전체적으로 성인교육과 훈련 참여율은 감소되고 있지만, 실제 시간 수는 증대하였다. 2000년에 캐나다는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으나, 캐나

13)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of Canada, 1997,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http://www.cmec.ca/publications/edtech-en.stm#summary> [online] [cited 2005.11.20]

14) Statistics Canada, 2003, Education Indicators in Canada: Report of the Pan-Canadian Education Indicators Program(PCEIP), 2003, Toronto, Ontario: co-published by,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1-582-XIE/2003001/pdfdocs.htm> [online] [cited 2005.11.19]

다 정부는 2010년까지는 상위 5위로 진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캐나다에서 연구개발에 있어서 대학부문이 비즈니스 부문 다음으로 큰 기여자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요한 기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이래 대학들은 연구개발 예산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는데, 2000년에 대학 자체가 가장 큰 재정 지원자이고(50%), 그 다음이 연방정부였다(22%). 2001년에 캐나다의 노동연령층(25-64세)의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학학위를 가진 노동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의 구조 및 구성원이 변화하고, 대학 자체가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적 동인으로서 역할 및 기여도가 보다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데 담당해야 할 역할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93개 대학교(universities)와 대학학위 수준 대학(colleges)의 전국협회인 캐나다 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Canada, AUCC)가 2002년 간행한 캐나다 대학교육의 동향분석 보고서<sup>15)</sup>는 향후 십년 동안 교수, 연구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대학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증가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까지 캐나다의 대학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고등교육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첫째, 대학등록에 대한 요구가 20-30% 증가할 것에 대비한다. 둘째, 대학등록의 증가와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이만 여 교수를 충원해야 하고, 또한 이만 명 정도를 대체해야 한다. 셋째, 캐나다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연구개발의 상위 5개국 안에 들게 하려는 연방정부의 목표의 결과로 상당히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대학이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을 유지하고 동시에 개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연구예산에는 육억 사천만 캐나다 달러를 더, 그리고 운영경비에는 육억 이천만 달러를 더 투입해야 한다. 다섯째, 백 육십만 개의 학사학위와 삼만 삼천 개의 대학원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연구자와 산업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대학에 기반한 혁신에 상업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상업화에 의하여 창출되는 수입을 배가한다. 일곱째, 교수, 연구 및 지역사회 발전에서 보다 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보다 국제적으로 협력적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는 또한 1999-2000년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삼백만 캐나다 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하였고, 캐나다에만도 삼십 오억 캐나다 달러 정도의 수입을 가져온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를 겨냥하여 교육의 세계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 및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sup>16)</sup> 이 같은 사회적 요구와 변동은 대학도서관들이

15)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2002. Trends in Higher Education: Summary of Findings. [http://www.aucc.ca/publications/aucppubs/research/trends/summary\\_e.html](http://www.aucc.ca/publications/aucppubs/research/trends/summary_e.html) [online] [cited 2005.11.24]

16)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November 2003. The GATS and Higher Education in Canada: An Update on Canada's Position and Implications for Canadian Universities. [http://www.aucc.ca/\\_pdf/english/reports/2003/GATS\\_Update\\_e.pdf#search='canada%20education%20council%20higher'](http://www.aucc.ca/_pdf/english/reports/2003/GATS_Update_e.pdf#search='canada%20education%20council%20higher') [online] [cited 2005.11.24]



그동안 인식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Ⅲ.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문제점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의 축소,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구조의 요구,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고립된 개별적 문제들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어, 국가 혹은 정부의 보다 거시적이며 광범한 차원의 이해와 대책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 예산의 축소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대학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도서관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북미주 연구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05개 주요 대학 도서관들의 예산은 1986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연 평균 5.0%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 대학예산에 대비한 예산비율은 축소되는 경향이고, 학생 수의 증가, 이용자 요구의 변화, 및 정보자원의 가격급등과 같은 지속적 상황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연구도서관들이 매우 중대한 전기에 놓여있고, 특히 정보자원의 지속적 축적과 보존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영향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UC 도서관들은 재정 압박과 자료 가격 급등의 압력이 심화되는데, 무엇보다도 도서관들이 더욱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실제로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해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서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증가하면서도, 인쇄 및 다른 포맷에 대한 요구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개별 캠퍼스 도서관 및 대학 전체에서 이전에 유지해 오던 “재정 모델(financial model)”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짐을 인식하고 있다<sup>18)</sup>. 한편 국제적 도서관 협력기구이자 서지 유틸리티

17) Kyrrilidou, and Young, 2004. 전계자료., Table 4. “Expenditure Trends in ARL Libraries, 1986-2004. Median Values for Time-Series Trends - Unadjusted dollar figures.”

18)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The Crisis of Library Sustainability, the Opportunities of Digit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trategy: Background Paper for the Joint Meeting of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인 OCLC의 회장 겸 CEO인 Jay Jordan이 국제 도서관 커뮤니티 협력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도서관들이 축소되는 기부금, 축소된 재정지원, 증대되는 비용 및 변화되는 서비스 요구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음을 지적한 것<sup>19)</sup> 또한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에 대하여 도서관계 전반이 갖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실무자들과 관리자들은 축소된 예산은 학내 전반적인 공통적 문제이나, 특히 도서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추가적인 압력을 겪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Colorado State University의 대학도서관장인 Catherine Murray-Rus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대학도서관장인 Brian Schottlaender, University of Arizona의 대학도서관장인 Carla Stoffle 등 13인의 도서관계 리더들이 애리조나주의 특산에 모여 고등교육기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현실과 위상에 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sup>20)</sup>

- 학술정보 가격의 기록적 인상: 특히 저널 가격만도 연 6-12% 인상률 보임
- 온라인 저널과 색인 출판사들과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때문에 종종 비싼 패키지나, 중복된 인쇄 버전을 구입하도록 강요됨.
- 디지털 콘텐츠 전달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학생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기술기반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함.
- 숙련된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상승함.

영국에서도 대학도서관이 학생과 교수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당시 대학의 예산규모가 축소되면서 도서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예를 들어, 이전의 대학재정지원위원회(Universities Funding Council, UFC) 부문에서 기관 전체 예산에서 도서관 예산비율은 1980-81년에 4%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1991-92년에는 2.8%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일인당 전체 도서관 비용도 감소되었다.<sup>21)</sup> '폴렛 보고서'에서 1990년 초반 당시의 도서관 예산의 문제점을 이와 같이 지적하였으나, 그동안 국가 차원의 지속적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서관 예산의

---

Committee and the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May 23, 2002." [online] [cited 2005.8.25]  
<<http://www.slp.ucop.edu/documents/librarycrisisbackground.doc>>

19) Jordan, Jay. 2003. "Cooperating During Difficult Tim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9(6): 343-345.

20) Brewer, Joseph M., et al. 2004. "Libraries Dealing with the Future Now." *ARL Bimonthly Report*, 234. <<http://www.arl.org/newsltr/234/dealing.html>> [online] [cited 2005.8.29]

21) "The Follett Report, 1993." Joint Funding Council's Libraries Review Group: Report. December 1993. A Report for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Scottish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for Northern Ireland.

문제점은 크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대학도서관 현황에 대해서는 Loughborough University의 LISU(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가 대학, 국립 및 학술도서관 협회인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SCONUL)의 지원으로 매년 작성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LISU의 최근 통계<sup>22)</sup>는 1992-93년부터 2002-03년도 사이의 대학도서관의 현황 추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영국의 대학들을 1992년 이전에 Universities Grants Commission에 의하여 지원받는 대학들과 ‘개방대학(Open University)’를 통합한 “Old” 대학(university), 주로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이전의 기술(polytechnic) 대학 및 기타 대학들을 포함하는 “New” 대학(university), 그리고 “HE” 대학(college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2-03년 통계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01-02년에 67개 기관에서 2002-03년에 68개 기관으로 늘어난 “Old” 대학들에서는 전체적으로 1992-93년에서 2002-02년 사이에 도서관 예산은 84% 증가하였으나(155백만 파운드→286백만 파운드), 전체 대학 예산의 증가율인 9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5,218백만 파운드→10,260백만 파운드). 전체 기관 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이 1992-93년에 2.9%, 1996-97년에 3.2% 였던 것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1-2002년에 이어 2002-03년에는 2.8%에 머무르고 있었다.<sup>23)</sup>

호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점차 축소되는 재정지원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 호주 연방정부가 대학에 제공하는 비용은 모두 62억 달러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해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sup>24)</sup> 한편 2004년에는 향후 2년간 26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는 등<sup>25)</sup>, 전체적인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늘어나긴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계획에 따르면 2001-2002년 GDP의 1.8%인 것이 2041-2042년 동안에는 1.6%가 되는 것처럼 전체 국가예산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은 연구개발에 대한 자극을 제한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부문과 호주국립도서관에 대한 현상유지 정도의 재정지원과 맞물려 도서관 정보 부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한정된 전체 예산 가운데 호주국립박물관과 같은 문화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서관과 같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2년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에서 간행한 보고서인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An Overview Paper*<sup>26)</sup>는 호주의

22) Creaser, Claire, Maynard, Sally, and White, Sonya. 2004. LISU Annual Library Statistics 2004: Featuring Trend Analysis of UK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1993-2003. Loughborough: LISU.

〈<http://www.lboro.ac.uk/departments/dils/lisu/downloads/als04.pdf>〉 [online] [cited 2005.11.4]

23) LISU. 2004. 전계자료.

24)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2. “Federal Budget 2002.”

〈<http://archive.alia.org.au/publishing/papers/budget.analysis/2002.html#hed>〉 [online] [cited 2005. 9.27]

25)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5. “Federal Budget 2004.”

〈<http://alia.org.au/publishing/budget.analysis/2004.html>〉 [online] [cited 2005. 9.27]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의 방향과 적절한 재정지원의 구조와 규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축소 당위성과 그에 따라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지원금의 할당에 관한 첩터(h. allocation of public subsidies, pp. 33-40)”, 164항에서 단 한번 도서관에 대하여 언급할 뿐, 변화하는 고등교육의 현 체제 안에서 대학도서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 정책방향은 다루지 않고 있다. 즉, “호주의 대학들이 환율변동과 증대하는 도서관 비용의 추세에서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품질이 적어도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sup>27)</sup>

캐나다 또한 계속해서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재정을 긴축함에 따라 예산을 축소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쳐왔다. 언제나 도서관은 기관 예산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잡지 못해왔고, 예산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왔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발전정책이 없었고, 도서관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분산된 개별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합리적 배분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서관의 전체적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ARL회원인 캐나다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전체 예산<sup>28)</sup>은 1986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113% 증가하였고, 도서관 총예산 중앙값의 추이에 따르면 매년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 3.1% 정도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전체 예산의 증가는 높은 편이지만, 급등하는 연속간행물 가격 때문에 연속간행물에 할당해야 하는 예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도서관의 예산이 다양한 정보자원과 서비스, 인적 자원을 위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 2. 도서관 역할의 변화

### • 학생 수 증가와 구성의 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한편, 학생들의 구성 또한 변화해가고 있다. 우선 미국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삼십년 동안 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왔고, 앞으로 십여 년 동안도 그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 및

26) Commonwealth of Australia(COA). 2002,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An Overview Paper*, Canberra: Department for Education, pp.14-15. [online] [cited 2005.9.28]  
<<http://www.backingaustraliasfuture.gov.au/publications/crossroads/pdf/crossroads.pdf>>

27) Commonwealth of Australia(COA). 2002, 상계자료, “h. allocation of public subsidies”, p.34.

28) ARL. 2005, “Expenditure Trends in Canadian ARL Institutions, 1986-2004: Median Values for Time-Series Trend.” <[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aexp04\\_can.pdf](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aexp04_can.pdf)> [online] [cited 2005.11.26]

소수민족 학생의 현저한 증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증대, 파트타임 보다 전임학생 비율의 증대 등과 같은 현상은 특히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29)</sup> ARL 통계에서는 1986년부터 2004년 사이 주요한 백 여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연평균 1.1%, 대학원생 수는 3.7%, 교수 수는 1.4%의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또한 앞 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CAUL이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증대한 변화요인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고, 영국의 대학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의 목표를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30세 이하 영국국민의 5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sup>30)</sup> 영국에서는 1988-89년에서 1992-93년 사이에 전일제 대학생의 수는 517,000명에서 811,000명으로 57%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학생수의 성장률은 대학들마다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영국 전체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FTE(전임) 학생수를 2000년까지는 1,170,000까지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다.<sup>31)</sup> LISU의 최근 통계는 전체적으로 2002-2003년에 전체 FTE 학생 수는 4.6%, 전임교직원 수는 1.9%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2)</sup> 이 같은 성장률은 '폴렛 보고서' 당시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완만하지만,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영국 내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확대되고, 따라서 대학교육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영국에서는 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비전통적(non-traditional)'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이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에 부가적이거나 구별되는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1-92년 사이에 전체 대학생들의 55%, 신입생의 45%가 21세 이상이었고, 그 같은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계속되는 건축 재정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학습지원을 위한 기반구조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용자와 컬렉션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도서 컬렉션, 정기간행물과 기타 자료, 더 많고도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의 능력 등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 구성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이용자층의 증대와 요구의 변화

ACRL Task Force는 대학도서관들이 증대하는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와 자원 제공 방법을 필요로 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원격교육 학생, 혹은 새로

29) U.S. Dept. of Education,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The Conditions of Education, 2001-2005. 1. Participation in Education. Undergraduate Education. Past and Projectd Undergraduate Enrollment. <<http://nces.ed.gov/programs/coe/2005/section1/indicator07.asp>> [online] [2005.11.1]

30) Dolphin and Brophy, 2002. 전계자료.

31) The Follett Report. 상계자료

32) LISU, 2004. 전계자료.

은 교수 및 학습방법에 개입된 사람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지침과 접근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대학의 조직체계상의 문제점까지도 다루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더욱이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증대하는 문해능력(literacy)의 결여” 및 베끼기와 저작권에 대해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지닌 “잘라 붙이기(cut-and-paste)” 세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웹의 부상(the rise of the Web)” 때문에 웹이 학생과 교수의 최초의 선택이 되는 경향, 그에 따라 도서관이 주변화해 버릴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33)</sup> 결국 증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이용자 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UC 도서관 시스템은 도서관 역할 변화의 중대한 문제점으로서, 특히 대학의 많은 학생들, 심지어는 일부 교수들도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권위 있는 전자정보자원의 종류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검증되지 않고, 자주 오류가 있는 정보 사이에 구별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도서관이 디지털 형태로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수집, 조직, 편목하고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점차 ‘비가시적(invisible)’이 되어, 이용자들은 그 모든 것이 ‘웹에 다 있는 것’이라고만 믿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34)</sup>

새로운 이용자층에는 영국, 호주 등에서 전자학습 및 원격교육이 증대함에 따른 교외(off-campus)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국가의 고등교육 목표에 따라 대학은 전자학습에 투자하고, 원격 학습 학생수를 증대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은 WebCT와 Blackboard 같은 관리된 학습 환경과 링크를 구축하며, 원거리에 살거나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온라인 정보기술 모듈, 이메일 혹은 웹 기반 헬프 도구를 만드는 데 점차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영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는 2001년 시작된 전자대학, 즉 U.K. eUniversity의 구축으로 2003년까지는 소수의 코스들이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그동안 미국과 호주가 전자학습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로서 현재 국제적 고등교육 시장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영국에서 전자대학의 학생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2002년 현재까지 아무런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SCOUNL은 광범한 분산자원과 지원 서비스로 지원되는 e-U Library Hub을 제안했고,<sup>35)</sup> 이미 1990년대부터 인식되었던 연구자원 및 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 확대, 특히 온라인 목록과 전자 문헌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역 및 국가 네트워크 구성, 연구자원의 공유,<sup>36)</sup> 및 자원에 대한 소유(holding)보다 접근(cited)의 개념의 중시, 도서관들 간의 협력 확대 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대학도서관 예산 중 20-30%는 전자자원

33) Albanese, 2003. 전계자료.

34)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전계자료.

35) Dolphin and Brophy, 2002. 전계자료.

36) The Follett Report, 1993. 전계자료.

에 소비되고, 이 자료의 대부분은 영국의 고등교육지원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의 하부위원회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후원아래 고등교육용으로 개발된 인증 시스템인 ATHENS를 통하여 캠퍼스 안팎에서 접근될 수 있다.<sup>37)</sup>

### 3.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대학도서관이 소장하는 정보자원의 성격이 지난 십여 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대학도서관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인쇄자원이었으나, 그 동안 디지털 도서관 컬렉션의 새로운 형태가 급격히 등장함에 따라 보다 다원화하고 광범해진 도서관 컬렉션을 구축, 서비스 하고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났다. 도서관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학내에서 교수, 학습 및 연구를 위해 필요로 하고 사용되는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점차 다음과 같은 자원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sup>38)</sup>

- 전통적 인쇄자원: 대부분이 디지털 등가물이 없고, 대학의 교수 및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 라이선스된 디지털 컬렉션: 영리 및 비영리 출판사들에 의하여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대학의 공유 디지털 컬렉션을 위해 입수된 저널과 도서와 같은 전통적 학술간행물로 구성됨
- 디지털 “구축 콘텐츠(built content)”: 대학 내부에서 생산되었거나, 고문서, 지도, 시각 이미지, 음성 파일과 같이 기존의 컬렉션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자료들
- 월드 와이드 웹: 웹 상에서 어떤 이용자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포맷으로 된(그리고 매우 변화하는 품질과 지속성을 가진) 정보자원의 컬렉션
- 기타 디지털 자원: 대학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 데이터 세트, 기타 일차 연구 자료 및 교수자료들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매체가 인쇄자원에서 전자자원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서관들은 기존의 인쇄자원과 전자자원 컬렉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재정긴축의 한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다.<sup>39)</sup>

37) Dolphin and Brophy, 2002. 전계자료.

38)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전계자료.

39) CARL, 2005, “Towards an Integrated Knowledge Ecosystem: A Canadian Research Strategy.” A Report Submitted to the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L’Association des bibliothèques de recherche

• 디지털 정보자원의 접근과 보존

ACRL Task Force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일곱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자원의 생성, 제어 및 보존을 지적하고, 무엇을 디지털화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디지털 자원을 위해 적절한 서지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자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sup>40)</sup>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 사회적 변화가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영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한 당면과제를 도서관에 부과한 것을 알 수 있다.

UC 도서관들은 학술정보의 세계수준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자원들이 처음 생성, 간행 및 배포된 후에도 오래도록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도서관이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쇄자원 컬렉션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당면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한편, 문제와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된 학술정보자원의 규모가 증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당면과제들이 한층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자원이 특성상 극히 취약하고, 원래 단명하고, 장기적 가치를 위해 평가하기 어려우며, 콘텐츠나 품질이 걸러지지 않은 많은 정보가 웹에 산재해 있어, 도서관들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식별하고, 입수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수명을 갖도록 보장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도서관은 자신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보호관리권(custody)을 갖지 못하고, 예를 들어, 라이선스된 간행물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사이트에,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생산한 저작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학과 컴퓨터에, 혹은 공공 접근 가능한 웹 자료의 경우에는 월드 와이드 웹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가 있다.

#### 4.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구조의 요구

대학도서관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운영과 서비스를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모든 도서관에 보편화된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그런 것처럼,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도서관의 조직 생산성을 개선하고, 증대하는 운영 경비를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sup>42)</sup> 그러나, 도서관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입수해야 하는 정보의 비용 증대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du Canada(CARL/ABRC). <<http://www.kdstudy.ca/2005/appendix2.pdf>> [online] [cited 2005.11.26]

40) Albanese, 2003. 전계자료.

41)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전계자료.

42) Breeding, Marshall, 2004.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s,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0(1): 1-88.



있다. 전통적 포맷의 정보생산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서관 기술을 채택하는 비용은 도서관과 그 모기관, 즉 대학에 추가적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43)</sup>

최근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2001-2005년 교육현황 보고서’<sup>44)</sup>는 미국 대학도서관들이 대학커뮤니티의 주요한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점차 그들의 주이용자 이외의 대학 외부 이용자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 회계연도에 94%의 기관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전자목록(OPAC)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4년 전의 통계에서 나타난 80%보다 현저히 증가한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대학들 간에 있었던 전자접근의 제공 격차가 거의 좁혀졌음을 보여준다. 1996년에 연구중심,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카네기 분류 대학들 가운데 96%가 전자목록을 제공하는 한편, 학사학위 수여대학의 83%, 기타 대학의 77%만이 전자목록을 제공하였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97%의 학사학위 수여대학과 93%의 기타 대학들이 전자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대학도서관들 가운데 99%는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데, 74%는 도서관내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여 도서관 참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72%는 교내 어디서든 이메일로 도서관 참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메일 참고 서비스는 1996년에 40%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98%의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도서관내에서 인터넷 자원에 대한 접근교육을 수행하고, 73%의 대학도서관은 전자적으로 상호대차 신청이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치는 1996년의 60%에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49%의 도서관은 전자적으로 문헌을 제공하며, 1996년에는 17%만이 동일한 접근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고급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의 입수와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대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도서관을 위한 견고한 기술 기반구조가 중요한 동시에, 학내의 다른 기반구조 및 애플리케이션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도서관은 학술정보 접근과 제공을 위해 캠퍼스 기술 기반구조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금/인사 및 도서관 대출과 인증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관리 시스템이나 행정정보용 캠퍼스 시스템들과 연결되어야 하고, 교과목 웹 사이트에 도서관 자원을 통합시키기 위해 수업관리 시스템과 같은 학술기술 서비스와 상호작용해야 하는 등 다양한 학내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업무의 중복이나 권한의 범위 설정 등도 문제가 된다.

ARL Task Force는 대학도서관이 “캠퍼스 정보광장(information commons)”을 설치해야 하는가? 도서관들이 전통적 학술계층보다는 “정보군주(information czar)”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가? 등의 실질적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와 캠퍼스 내 정보기술 관련 부서들

43)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전계자료.

44) U.S. Dept. of Education,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The Conditions of Education, 2001-2005. 5. Contexts of Secondary Education. College Resources: Electronic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http://nces.ed.gov/programs/coe/2005/section5/indicator33.asp>>

간에 종종 중복되는 서비스의 균형을 시급히 해결하고, 도서관의 “기술적 최신성(technological currency)”을 유지하며, 증대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정된 대학예산 내에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부서나 기관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45)</sup>

한편, 호주의 대학도서관들에게 있어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문제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금까지 선진의 연구, 선구자적인 기술 및 고급 기반구조를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결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989년에 세계 최초의 학술 컴퓨터 네트워크들 가운데 하나인 AARNet을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인터넷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초기에 채택하였다. 호주는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과 혁신적 특정시장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그 같은 기술적 선진성을 기반으로 호주 고등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원격교육이 발전되어 왔고, 현재 대학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호주 내 및 해외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격교육을 통하여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들은 학습지침, 과제의 부과, 수업 자료의 제공 및 교수와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점점 더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sup>46)</sup> 대학도서관들은 또한 국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원격교육과 개방학습(open learning) 기회를 지원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그 위에 커리큘럼 내에 정보문해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47)</sup> 따라서 대학도서관들은 캠퍼스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유지하든, 다른 기관들과 더불어 새롭게 통합된 구조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든, 대학에서 요구되는 온라인 교수학습자원 및 방법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 5.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상승 및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는 어느 나라의 대학도서관에서든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학술정보 의존 및 그에 따른 비용의 해외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영국에서 ‘폴렛 보고서’가 1990년대 초반에 지적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학술도서와 정기간행물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자료의 생산량, 특히 정기간행물의 간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45) Albanese, 2003. 전계자료.

46) EdNA Reference Committee, 1999. *Education and Training Action Plan for the Information Economy*. Report to the Australian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MCEETYA.

47) Austen, et al. 2002.

것이였다. 당시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에 인용된 정기간행물의 수는 1980년에 62,000종이었던 것에 비하여, 1992년에 126,000종으로 늘었고, 1980-81년에서 1991-92년 사이에 *Blackwell's Periodicals Price Index*는 그 가격이 평균 300% 인상된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의 정기간행물 예산은 불과 111% 증가하였고, 일반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는 단지 77.1% 증가하였을 뿐이다.<sup>48)</sup>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그 같은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상승은 계속되어, 영국의 학술도서의 평균가격은 1992-93년부터 2002-03년 사이에 17.6% 정도 증가하여, 2003년에 41.62파운드에 달하였는데, 이 기간 전체 소매물가지수 상승률은 28.9%였다. 한편 미국의 학술도서 가격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여 49.3%까지 올랐고, 미국과 영국의 환율차이를 고려한다면 전체적 학술도서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2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정기간행물의 가격은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영국의 환차를 고려할 때, 영국에서는 1994년 한 해 동안 17-25%의 가격 상승률을 예측할 정도였다.<sup>50)</sup> 2004년에 영국에서 인문학 분야의 정기간행물은 평균 89.14파운드, 과학 분야의 정기간행물은 703.49파운드, 전체 주제 분야의 평균 연간구독료는 423.06파운드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1.7%, 인문학 분야에서 34.6% 가격상승률을 보였다.<sup>51)</sup> 영국에서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도서에 대한 예산은 34% 가량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로 학생 일인당 도서관 예산은 17% 하락된 것이다. 자료가격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일인당 예산은 더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997-98년 이후 정기간행물의 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그 구독비용은 또한 도서비용을 희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ARL 회원인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이 1986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지출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비용의 통계<sup>52)</sup>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연속간행물 전체예산은 320% 증가하였고(캐나다 달러 \$1,225,367 → \$5,145,738), 연속간행물 단위 가격은 193% 증가하였다(\$92.38 → \$270.40). 그러나 실제로 구입한 연속간행물의 종수는 68%만 증가하여(14,555종 → 24,417종), 가격의 상승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단행본의 단위 가격 상승률은 92%에 달하였고(\$31.71 → \$60.89), 전체 단행본 예산은 62% 증가하여(\$843,802 → \$1,349,618) 실제로 구입한 단행본 종수는 도리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753종 → 20,846종).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전체 73% 인상된 것을 고려한다면(109.6 →

48) The Follett Report, 1993. 전계자료.

49) LISU, 2004. 전계자료.

50) The Follett Report, 1993. 전계자료.

51) LISU 2004. 전계자료.

52) ARL, 2005. "Monographs and Serials Expenditures in Canadian ARL Institutions, 1986-2004."  
 <[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monser04\\_can.pdf](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monser04_can.pdf)> [online] [cited 2005.11.25]

189.4), 연 평균 6.11%에 달한 연속간행물의 가격상승률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또한 단행본에 비해, 연속간행물의 가격 상승률이 매우 커, 이는 도서관의 구매력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결국은 단행본의 구입을 축소시키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ARL 회원인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이 자료에 할당되는 예산은 중앙값의 추이에 따르면 매년 6.6% 정도로 증대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연속간행물 예산은 연 8.3%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단행본 예산은 단 2.6% 증가율만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편중 배분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217% 증가하였고, 연속간행물 예산은 320%, 단행본 예산은 60%만 증가한 것을 보면 그 같은 편중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 학술정보자원의 해외의존

호주의 대학도서관들은 정보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구매력이 계속 감소된다는 문제점에 따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지식접근과 배포라는 세계적 문제에 당면하여 국가적으로 조정된 계획과 재정지원이 결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보접근과 제공의 기반구조에서 국제사회의 경쟁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sup>53)</sup>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학의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정보자원의 해외의존도가 큰 호주 대학도서관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호주의 도서관정보협회(ALIA: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앞서 언급한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 반응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한이 대학도서관이 연구와 교수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보자원의 80% 이상을 미국과 유럽에서 구입해야 하는 연구도서관들이 1972년 이래 호주 달러(\$A)의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왔고, 자료를 구입하거나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품질에까지 결과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4)</sup>

예를 들어, 1999년에 호주는 모두 135백만 달러 상당의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수출하였고, 795백만 호주달러 어치를 수입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77%가 미국과 영국에서 간행된 것들이었다<sup>55)</sup> 호주 도서관들이 직면한 정보자원의 해외의존도에 대한 문제점은 심지어는 다른 나라인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조차 지적되고 있다.<sup>56)</sup>

53) Steele, 2000. 전계논문.

54)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2. Higher Education Review: Submission 352. <<http://www.backingaustraliansfuture.gov.au/submissions/crossroads/pdf/352.pdf>> [online] [cited 2005.9.28]

55) Houghton, John. Economics of Scholarly Communication.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for Innovation in Scholar Communication, pp. 29-34. Victoria University, Center for Strategic Economic Studies. <<http://www.anu.edu.au/caul/cisc/EconomicsScholarlycommunication.pdf>> [online] [cited 2005.10.1]

56)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A Report to the RSLP

동일한 문제가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 정보자원의 대부분이 캐나다 외부에 있는 소수의 상업적 출판사들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이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에게는 큰 문제로 여겨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 Elsevier를 포함하는 열개 정도의 대형 출판사들이 출판되는 과학, 기술, 의학(STM) 문헌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전체 연속간행물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십 년 사이에 가격의 급등을 주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출판사들의 가격도 이들보다는 다소 완만하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져, 2002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Elsevier, WK Health, Thomson SHC, New Springer라는 네 개의 상업적 출판사가 전체 STM 출판시장의 49.3%를 장악하고, 상위 15개사가 77.8%를 차지하며, 비영리학회 및 대학출판부 35개를 포함한 상위 50개사가 전체의 9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sup>57)</sup>

이와 같은 현황에서 캐나다, 호주 및 영국의 대학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출판사들에 의하여 공급되고, 미화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한편, 주요한 해외 화폐에 대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혹은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이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계속 현저하게 하락하여 구매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도서관과 출판사는 저널의 가격인상에 따른 구독 중단, 또한 구독 중단 저널 종수의 증가에 따른 구독 저널의 가격인상과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고, 도서관 인체자원의 고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6. 그 밖의 문제들

앞에서 열거한 여러 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공통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각 나라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의 일부는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서도 인식되는 것들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개별성을 띠고 있다.

### • 자원공유의 문제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상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2001년 영국의 연구지원 도서관 프로그램(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me, RSLP)이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과 CHEMS Consulting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sup>58)</sup>는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이 그동안 상호대차를 통한 문헌제공,

on: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Among Higher Education Libraries.

5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4.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Digital Broadband Content Panel and Government Discussion Session, 3 June 2004: Summary and Conclusions. 38p.

서지 레코드 공유, 지역의 접근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언제나 협력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의 도서관들은 보다 협력의 규모와 깊이를 더욱 확장해야 할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간행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더 이상 어느 도서관도 혼자서는 모든 연구 자료를 수집하도록 기대할 수 없고, 도서관 비용이 인상되었으며, 도서관 정보기술의 속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들이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별 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상당한 위험을 포함하기도 하는 ‘심층적 자원공유(deep resource sharing)’가 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도서관들이 많은 협력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 사이에 자원공유는 매우 적고, ‘심층적 자원공유’는 거의 부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상호대차와 문헌제공은 영국 도서관들에 잘 확립된 부분으로 존재해 왔고, 접근(cited) 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어서, RSLP cited Fund를 통해 대학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출입할 수 있고, UK Libraries Plus를 통해 파트타임 및 원격교육 학생들도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에 출입하고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도 출입까지 허용되지만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의 학생들이나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은 출판사들 때문에 보통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컬렉션 공유에도 어느 정도 활동이 있어왔지만 현재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요한 소장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왔고, 자료의 ‘소유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기관들은 별로 없다고 한다. 또한 JSTOR을 통해 잘 사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보장한다고 해도, 아직도 인쇄자료를 포기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더욱이 공식적 협약이나 동의를 없이 타기관의 소장자료에 편승하려는 일부 기관들의 비공식적 움직임도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별 기관들의 중대한 변화는 적어도 상당한 인센티브(반드시 재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강제적인 법적 및 관리체제, 강력한 전문적 및 학문분야 지도자, 그리고 응집력 있고 폭넓게 용납되는 국가적 정책이라는 요건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보다 많은 자원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와 재정지원 기구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며, 특히 HEFCE(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가 도서관 지원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정보전문직의 충원 문제

앞 절에서 ACRL Task Force가 사서 충원을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한 중대한 과제들 가운데 하

58)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A Report to the RSLP on: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Among Higher Education Libraries.

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각 나라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통계 수치를 보면, 이 문제가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공유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예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되고, 자료비의 급등에 따라 도서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할당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학도서관 예산 중에서 2002-03년 사이에 직원에게 할당된 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52%에서 49%로 줄어들었고, 정보자원의 입수 비용은 39%까지로 늘어났다. 한편 그 동안 전년도보다 대학생 수(785,000 → 821,000) 및 교직원 수가 증가하고(82,000 → 84,000),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했으며(530개 → 540개), 그에 따라 도서관 직원 수도 증가하였다(1,900 → 1,940). 그러나, 실제로 사서 일인당 학생 비율은 늘어나, 2002-03년 동안 2.4% 증가율을 보였고(413명 → 423명), 그에 따른 사서의 업무부담은 몹시 증가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적인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같은 추세는 “Old” 대학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New” 대학들 및 “HE” 대학들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up>59)</sup>

캐나다에서도 역시 학생 한 사람 당 직원 수는 매년 2.6% 정도의 감소율을 보여 1986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38%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1986년에 학생 한 사람 당 직원 수는 0.017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0.0106명이 되었다. 더욱이 Statistics Canada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05년까지 캐나다의 도서관 정보전문직의 48% 정도가 은퇴할 것이라고 한다.<sup>60)</sup> 이들이 공공, 학교, 전문 및 대학도서관 등의 여러 부문에 속해 있을 것이나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미래에 우수한 사서전문직의 충원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던 것처럼, 캐나다의 대학도서관에서도 은퇴한 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직원의 충원이라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주관부서의 부재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중앙의 주관 부서가 없이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1년 10월 26일 캐나다 도서관협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CLA라고 부름)는 캐나다에서 국가차원의 도서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국가적 ‘Campaign for Canada’s Libraries’를 출범하였다.<sup>61)</sup> 이 캠페인은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대중에게 국가의 새로운 혁신 아젠다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캐나다 도서관 위원회(Canadian Council of Libraries)

59) LISU, 2004. 전계자료.

60)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2001. “CLA Submission to the House of Commons Finance Committee.” <<http://www.cla.ca/issues/hocfinance2001.htm>> [online] [cited 2005.11.26]

61)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November 21, 2001. “CLA launches Campaign for Canada’s Libraries.” <<http://www.cla.ca/issues/campaign.htm>> [online] [cited 2005.11.25]

의 필요성과 새로운 국립도서관 건물의 필요성,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용 도서할인율(Library Book Rate)’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시 CLA 회장인 Margaret Law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여러 수준의 정부가 도서관을 무시한 결과로써 캐나다의 혁신 아젠다가 일탈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CLA는 어떻게 도서관이 개혁 기반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를 도울 수 있으며, 반대로 연방정부는 도서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제안하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서관에 주어지는 재정지원을 한 군데에서 다루는 중앙기관으로서 캐나다 도서관 위원회(Canadian Council of Libraries)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원의 배분과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도서관 발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영국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UK,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는 과학기술 학술문헌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보고서<sup>62)</sup>에서 영국정부가 국가의 연구 커뮤니티, 납세자 및 상업부문의 요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전략이 “긴급하게(urgently)”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 위원회는 영국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그 결과인 과학기술 학술문헌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연구자는 그들이 속한 기관의 성격이 무엇이든,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저널에 대한 접근을 보장 받아야 하고, 대학은 기본적 교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법적인 교수 목적을 위해 디지털 저널로부터 최대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하며, 대중도 과학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저널들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주요한 이유는 상업적 출판사들이 부과한 매우 비싸고 계속 증대하는 저널 가격의 문제, 그리고 점점 증대하는 연구의 규모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대학도서관에 부과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재정을 갖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하여, 과학기술정보의 접근과 제공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하는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 나라들의 고등교육제도 자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분석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역할

---

62) U.K. House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04, Scientific Publications: Free for All? Tenth Report of Session, 2003-04, Volume 1: Report, HC 399-1.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Limited, July 2004.



과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특히 대학도서관이 문제점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가 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등교육환경의 변화를 일별하는 데서 몇 가지 공통적 경향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 영어권 주요 국가들은 대개 지난 일 이십년 동안,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국가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이끌어갈 고급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 하에 고등교육체제와 목표를 개편하였다. 일반대중에게 균등하고 풍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대중화시키고, 전형적인 십대 말, 이십대 초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학생들, 또한 재교육이 필요한 직장인들 및 일반인들의 성인교육의 기회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을 '학술기업(academic enterprises)'라고 표현하는 맥락에서, 여러 나라들이 원격교육과 전자학습의 발전을 포함한 교육방식의 개편과 국제화가 해외의 학생들을 겨냥한 교육산업 수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욱이 캐나다와 같이 국가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을 향후 중대한 목표로 삼으면서, 연구개발의 핵심적 동인 및 기여자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영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획득과 제공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 상황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고등교육환경의 변동 하에서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들은 크게 예산의 축소,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 구조의 요구, 그리고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여러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 대비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학 내에서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은 대학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완만하다.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은 또한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전임 및 파트타임 학생들의 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학생 일인 당 학술정보 자원 보유량과 연간 증가율, 사서 및 서비스 시간 등이 점차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더욱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불해야 하는 학술정보자원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의 과학·기술·의학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상업출판사들이 정보기술의 발전 및 대학 커뮤니티의 이용자 요구와 태도의 변화를 담보로, 전자 저널 및 색인·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구매력에 지대한 영향을 좌우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호주와 캐나다처럼 해외에 대한 학술정보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환율의 급락에 따른 대학도서관 구매력의 변동이 또한 큰 문제이다.
-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구입하고 유지해야 할 인쇄자원에 대한 지속

적 요구와 더불어 전자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을 균형있게 입수, 유지, 관리, 보존하면서 접근을 제공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 인쇄자원, 라이선스된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 “구축 콘텐츠”, 월드 와이드 웹, 및 기타 디지털 자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도서관 컬렉션 구축과 활용을 위해 이용자들의 요구 및 태도 변화, 학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구조의 요구: 대학도서관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 비용투자 및 학내 유관기관들과 경쟁 및 협조체제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도서관 고유의 업무와 서비스용으로 견고한 기술 기반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동시에 캠퍼스 내의 학사행정 및 학생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 기반구조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면서, 대학의 조직구조 내에서 완전히 독립적 운영체제를 고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전반적으로 학술 분야와 프로그램의 초점과 방법이 변화하고, 교수와 학생의 인구적 특성이 변화하며, 정보기술이 확산되며, 대학과 대학의 교수, 연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변화하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대학 커뮤니티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식된, 이 같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들은 개별 도서관들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직면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 노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하는 복수의 도서관들이 조직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국가나 각급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 및 전략적 발전대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이미 지난 일 이십년 사이에 이 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어떤 형태로든 강구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고, 이들에 대한 영어권 주요국가들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